





부대장

31

대원으로, 최후의 대장으로 1925년까지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농촌 소비조합의 선두에서 소비조합의  
원으로, 소비조합의 책임비서를 맡았다.

1925년에는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형의로 김원씨를 비롯  
해서 지역 분파까지 지구 신용조합 동지회를 조직했  
으며 다음 이 동지회는 곧바로 개편되었다. 1926년에는  
보통소비조합 공청회 위원으로 선거되어, 군 공청 등맹 계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1927년에 전연맹 공산당 후보위원으로의 입당하였  
으며 1931년 5월에 정당원으로 전당하였다.

1928년 9월에 울라지워스도크 소비당 파견에 의해  
모스크와 중앙 은행 재정 대학에 입학하여 그를  
1932년에 졸업하고, 1937년 조선인들의 강제 이주 때  
까지 소비은행 소비조합 지부 은행장으로 일하였다.

김찬 선생은 1937년 조선인 강제이주 시기에  
우르베코산한 규칸드시에 도착하여 시장업부 재  
정 계획과장으로 일하면서 차나르칸의 상업대학  
경제-계획 학부 ~~수료하고~~ 농신학부를 수료하고 1942  
년에 마르케란 시장업부장으로 선거되어 일하시었으며

1943년 봄에는 박준필란 시장위원회 제2회  
다음 1944년 봄에 1945년 8월까지의 페르가나주  
당 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지내시다가 군사동원부의  
명령에 따라 소련군 제25군단에 속하여 조선  
해방전에 참가하였다

북한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초기에는 주로 재정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북한 중앙은행사업을 총괄<sup>일지</sup>하고  
전체 북한 화폐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제1회에 1946  
년으로, 제2회에 1949년으로 하였다. 다음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 경제<sup>총괄</sup>위원회가 모호하여 조직  
원리 관행하여 그에 따르는 각종 조직사업을 지도하면서

재정경제 분야의 직능에서 일하시다가 조선동포학생

이 개시되자 제2군단 군사위원으로 ~~총~~출원, 양구  
인제를 걸쳐 서울, 수원, 제천까지 나가시었다가 전후  
에서 중상을 입은 모스크바 제2외과 병원<sup>에</sup>까지  
송송 되어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은 다음 인민군

대에서 제대되어 다시 재정은행 사업에 복귀  
하게 되었으나 그는 소련에 귀환할 때까지 계속  
북한 중앙은행 총재로 진실하게 사업하시었다

김한 선생이 북한에서 추방된 원인은 사업에서 과  
오를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 정권하에서 사업은



또 그리이들과 친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들의 자식들과 ~~친척들~~ 전부나 제대 권거하였기때 ⑥  
중에 (이응열의 아들을 비롯한 남편, 영만과 간부들의  
자식, 친척관계자들 전쟁 경험은 가진 비행사들은 불리 50%  
나은 기사는 신업보충 병들이었다, 특별히 어떤 환경  
에서 김찬의 아들을 재육성하러 소련으로 보낸다면  
전후경험소유자 비행사 전부를 소련에 보내야 되었다  
물론 어떤 환경에서 김찬의 아들은 어떤 좋은 출로를 택하  
여 국가에도, 12개 개인들에게도 <sup>유익하도록</sup> 유익하도록 있었으나  
무법 독재자 인민의 "어버이"는 김찬 선생을 불허 내각회의  
에서 불쌍정한 인간으로 ~~인간으로~~ 장시간 포박한 다음 해외  
당장 아들을 데리고 소련에 가라고 촉발하였다. 그  
당시 김찬의 아들 게오르기는 평양 처녀학교 졸업하여 살  
아 아이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sup>고려하는</sup> 인조선공민으로서 소련  
에 갈수없게 하였다.

1956년 말에 귀국한 김찬 선생은 모스크바를 경유  
중아시아 페르가나에 돌아오는 길중에 만 아들에게  
오르기는 레닌그라드 건설대학에서 다시 수강계  
하고 직신은 페르가나 국은행 복지비인으로 일  
병 받아 일한다음 1958년에는 우크레인은 정부의 파견  
에 의하여 레닌그라드 고급 재정간부 연구원에서 일년  
간 연구생으로 제신다음 1960년 불어 국가 계획위

원회 재정부장의 직책에서 1975 년까지 복무하시다가 70주년을  
진갑을 <sup>최고</sup> 공훈 연금생으로 은퇴하시였다.

김찬선선생에게, 누구나 그 선생을 아시는 이들은 전부다 존경  
과 용애를 돌리었다. 특히나, 김찬선선생의 아귀러니

말과 의하일종나도 언제나 인자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치하여준 덕택으로 그 아귀러니는 변명이

"구조 지리라고, 김찬선<sup>말과</sup> 선생은 "지리지"라고 <sup>배사</sup> 보충구부분

을 아는 사람들은 불러왔던바, 이것은 그 부분에게

최대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여서 칭하는 "아귀러니"

"아귀러니"라는 말이였다. 이 부분은 자기 집에 들

어 온 손님들을 어느때나 인자한 낫으로 아귀후

하게 접대하였었다. 그것은 어떤 값진 또 고귀한

음식으로 대하여서가 아니라 보충음식도 아귀따편

하게 데끼여 꼭맛있게 먹도록 시중하여주니까

그 집에는 어느때나 손님이 없을때까지 없었다. 이

다뉴켄호에 사는 조선사람치고 북한에 가서 일하

다가 도라온 사람들중 김찬선선생 <sup>말과</sup> 인자한

한 대접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김찬선선생은

여러 친구들의 따뜻한 존경을 받으면서 연금생

⑧  
활동하시다가 1992년 7월 28일에, 봉우세를  
일기로 하시곤 별세하시었다. 선생은 돌아가시는 날  
까지도 조국 통일에 대하여 많이 염원하시면서  
"조국 통일 조국 전선" 상임위원으로 계시었다.

김찬 선생의 딸 김 열라.